

배포 일시	2022. 10. 6.(목)		
담당 부서	건축정책관	책임자	과 장 박기범 (044-201-3775)
	건축문화경관과	담당자	사무관 김성자 (044-201-3779)
보도일시	2022년 10월 7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0. 6.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## 한옥 학생공모전 대상에 ‘닭고 담다’ 수상 - 2022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발표... 총 554점 접수작4개 부문 중 54점 선정 -

- 「2022 대한민국 한옥공모전」에서 학생공모(계획) 부문은 「닭고 담다」, 사진부문은 「지붕선의 미학」, 영상부문은 「우리의 한옥」이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.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가 주최하고 건축공간연구원이 주관하는 「대한민국 한옥공모전」은 한옥의 우수성을 발굴하고 한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.
- 올해 한옥공모전은 4개 부문(준공한옥, 학생공모, 사진, 영상)을 대상으로 총554개의 작품 접수되어 한옥에 높은 관심과 열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.
  -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서류·발표·현장 심사를 거쳐 준공부문 2점, 학생공모 부문 16점, 사진부문 28점, 영상부문 8점 등 총 54점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.
  - 대상 수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장관상과 함께 상금이 수여되고, 준공부문은 건축공간연구원장상 및 명패가 수여된다.

《 '22년 시상규모 》

구 분		학생공모(계획) 부문	사진부문	영상부문
대상 (국토교통부장관상)		1,000만원(1)	400만원(1)	400만원(1)
특별상(계획부문 내상)		500만원(1)	-	-
본상	금 상	500만원(1)	일반인 150만원(1) 청소년 100만원(1)	150만원(1)
	은 상	300만원(2)	일반인 100만원(2) 청소년 50만원(2)	100만원(2)
	동 상	100만원(3)	일반인 50만원(2) 청소년 25만원(2)	50만원(2)
입 선		상장(8)	상장(17)	상장(2)

\* 준공부문 : 올해의 한옥상(1), 한옥공공건축물상(1)

□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공모 부문은 ‘마음을 품은 한옥’ 이라는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(설계안)를 심사하였으며, 준공한옥 부문은 한옥 사용자의 만족도와 설계·시공 품질 등 건축물의 종합적 완성도를 중점적으로 심사하였다.

○ 사진·영상부문은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옥의 아름다움과 한옥의 가치를 독창적인 시각으로 담아낸 작품을 입상작으로 선정했다.

□ 부문별 대상작품에 대한 주요 심사의견은 다음과 같다.

○ (학생공모 부문 대상) ‘답고 답다’ 은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는 동네에 공적인 공간을 담아낼 수 있는 문화도서관을 기획하여, 한옥 공간의 이해와 해석을 바탕으로 공간-마당-공간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독창적 아이디어가 탁월하다는 호평을 받았다.

○ (사진부문 대상) ‘지붕선의 미학’ 은 한옥에 대한 높은 수준의 안목이 ‘사진’ 이라는 방식으로 표현되었으며, 특히 ‘집’ 이라는 일률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구성과 선택이 탁월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.

○ (영상부문 대상) ‘우리의 한옥’ 은 한옥의 전통과 역사가 현대에 함께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세련된 촬영과 편집으로 구현하였고, 특히 다양한 촬영 기법과 로케이션에 공을 들여 영상 품질이 우수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.

- 시상식은 11월 초(잠정)에 건축공간연구원(세종특별자치시)에서 개최될 예정이며, 이에 앞서 용산공원에서 개최되는 2022 건축의 날 행사와 연계하여 수상작이 전시(10.6~10.10)될 예정이다.
-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“이번 공모전을 통해 한옥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국민적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” 면서 “한옥에 대한 인식확산과 함께 한옥의 가치와 의미를 공유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” 고 밝혔다.
- 이번 공모전에 수상작으로 선정된 작품들은 대한민국 한옥 공모전 누리집 (competition.hanokdb.kr)에서 10월 6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.



□ 학생공모(계획)부문

○ (대상) 국토교통부장관상

계 획 안



작품명 및 심사평

- 작품명 : 「달고, 담다」
- 수상자 : 설윤주, 안문석(명지대학교)
- 심사평
  - 대상지의 공적인 공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문화도서관을 기획하여, 한옥 공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공간-마당-공간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독창적 아이디어가 탁월한 작품



○ (금상)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상



작품명 및 심사평

- 작품명 : 「공공기와 - 기와로 기억심기」
- 수상자 : 정재훈(서울시립대학교)
- 심사평
  - 건축물 사이의 중앙마당에 기와를 현대적으로 디자인한 패널을 설치하여 오픈플랫폼을 만들고 '기와언덕'이라고 명명하여, 한옥의 요소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현대적 해석 및 독창성이 돋보이는 작품



○ (한옥 공공건축물상)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상

구분	작품 사진
----	-------



한옥  
공공  
건축  
물상

소방서의 기능을 담은 한옥

1. 소방서의 재고

소방서에는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구급차, 헬기차, 물탱크차 등 대형 차량이 사용가능 한 구조가 필요하다. 이를 위한 차고의 확보, Shelter 및 7.5m, 9m의 크기로, 안전으로, 건축적 구성의 한계극복을 소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.

2. 일체의 불투명 구조

소방서의 기능을 위해 대공간을 구성할 수 있는 불투명 구조를 적용하여 밀도, 조망, 불이를 확보할 수 있었다. 불투명 양식의 장점을 가지면서 구획되는 양식으로 구조해결과 복부채를 사용하는 공간의 통일성을 확보하였다.

3. 일체의 한시적 구조

소방관의 대기실 및 체력단련실 등 오퍼레이션 인공물은 생활공간으로 한시 구조를 적용하였다. 일체의 일에서 내외로 순환하는 거대한 대공간에서 거대한 차이를 느끼게 하여 사용자 중심의 현대적 한옥으로 쓰여질 수 있었다.



공간으로서의 한옥



STEP 1. 한옥소방서를 위한 일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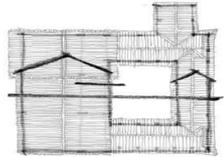
외부의 모습만 한옥으로, 내부구조는 도로 계획적인 구조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, 불투명 구조를 적용하여, 화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다. 화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다. 화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다.

STEP 2. 재-사용을 통한 기능, 구조의 적용

소방서의 불투명성의 일차 및 단층을 위해 일차구조는 지리수준에 생활공간을 확보하여 구성하였다. 기능에 맞게 생활공간은 화재에 대한 생활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. 내부공간은 화재에 대한 생활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.

STEP 3. 재-사용을 통한 기능, 구조의 적용

내부 공간은 화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다. 내부공간은 화재에 대한 생활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.



남한산성 119 안전센터 개조



작품명 및 심사평

「남한산성 119 안전센터」

- (심사평) 전국 유일의 한옥 소방서로서 상징성과 목구조가 내부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심리적 안정감으로 인하여 소방관들의 심리치료를 위한 PTSD실(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치유실)을 운영하고 있는 점이 인상적인 작품
- (위치)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239-1
- (수상자) 설계자 - 건축사사무소 강희재 강성원  
건축주 - 남한산성 119안전센터, 시공자 - 금세기 종합건설 최영구

□ 사진부문

○ (대상) 국토교통부장관상

수상	제목	사진
대상 (장관상)	지붕선의 미학 (대구 육신사) 수상자 : 박양심	

□ 영상부문

○ (대상) 국토교통부장관상

수상	제목	영상 사진
대상 (장관상)	우리의 한옥 수상자 : 서영원	